

칼럼

김수중 뉴스1 코olumn



'기후위기' 국민에게 진지하고 쉽게 설명하라

10월 22일 환경부가 '제2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이란 걸 내놴다. 한마디로 온실가스 배출을 언제까지 얼마만큼 줄이겠다는 정부의 계획이다. 2021년부터 시작되는 파리협정에 기초한 한국 정부의 감축계획이다. 한국은 현재 온실가스 배출 순위 11위 국가다.

정부는 2017년을 기준으로 2030년 목표연도에 온실가스 배출을 24.4% 줄이겠다고 설정했다. 2017년 배출량은 7억9000만 톤인 것을 2030년 5억3600만 톤으로 1억7300만 톤 줄인다는 것이다.

미국의 '뉴욕타임스'나 영국의 '가디언' 등 세계의 대표적 언론 기관들이 최근 눈에 띄게 자주 다루는 문제가 기후 변화 이슈다. 가디언은 지난 5월 '기후변화' 대신에 '기후위기'라는 용어를 사용한다고 공식 선언할 정도다. 이렇게 세계 여론이 기후 변화

를 발등에 떨어진 불처럼 여기는 이유는 남북극 빙하붕괴, 태풍 및 허리케인 발생 빈도와 강도의 증가, 폭염과 산불 확산 등 이전에 없던 재앙이 확산되면서 기후변화가 생각보다 위급한 문제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이런 현상이 2015년 19개국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파리협정의 필요성을 웅변해주고 있다.

파리협정의 필요성을 과학적으로 제시한 국제기구는 세계의 과학자와 정책 수립자들로 구성된 기후변화정부간위원회(IPCC)다. IPCC는 산업혁명 이전을 기준으로 섭씨 2도 이상 기온상승을 허용하면 인류가 위협해진다고 경고하고, 될 수 있으면 1.5도 이상 올라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권고를 달았다. 지난 8월 송도에서 열린 IPCC 총회는 기온 2도 상승 허용도 너무 위험하니 '1.5도'로 묶어야 한다는 수정권고를 다급하게 국제사회에 촉구했다.

그런데 산업혁명 시작 전에 비해 기온 상승은 이미 1도를 넘어섰으니, 앞으로 0.5도의 여유밖에 없다는 절박한 신호인 것이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IPCC과학자들이 온실가스 배출 감축 스케줄을 제시했다. 2030년 온실가스 배출을 2010년에 비해 45% 줄여야 하고, 2050년까지 '배출 제로(0)'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30년 후엔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석탄도 석유도 일체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얘기다. 혁신적인 재생에너지 개발과 에너지소비 방식의 변화가 절실했다.

1997년 체결된 교토의정서에 따라 유럽연합(EU) 국가들은 1990년 배출량을 기준으로 온실가스를 줄여왔지만, 한국은 개발도상국이라는 이유로 감축 의무를 지지 않았다. 한국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본 적이 없다. 2017년보다 2018년엔 2% 이상 온실가

스배출이 늘었고, 아마 올해도 늘어날 것이다.

한국은 가 보지 않은 길을 가야 한다. 2030년까지 25%를 줄이면 정말 고통스러울 것이다. 기업도 가정도 회사도, 그러나 2010년 기준으로 45% 줄여야 한다는 IPCC의 제시에는 한참 못 미치는 수치다.

환경부의 계획을 보면 온실가스 감축 분야는 진척 나열해놓지만, 국민에게 절박한 현실을 설득하고 정책을 쉽게 설명하고, 홍보와 교육을 강화할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느낌이 든다. 정부 스스로 고통을 감내할 의지가 약해 보인다. 환경부의 발표 자료에는 기후변화에 대한 국민 인식이 나와 있다. "대부분의 국민이 기후변화의 심각성은 인식하고 있으나, 기후변화 대응에 참여하는 노력 및 사회적 움직임은 부족하다."

대부분의 국민이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은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염려, 즉 기후변화를 걱정하고 있다는 얘기다. 이제 남은 일은 국민이 온실가스를 줄이는 행동에 참여하도록 홍보하고 교육하고 유도하는 것이다. 정부가 세세하게 모범적으로 나서야 한다. 유엔총회에서 세계 정상들을 향해 호소한 스웨덴 튜베리 소녀의 말마따나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

社 說

재개발 과열 잡음 안 된다

광주 북구 풍향동 재개발사업이 각종 잡음으로 과열 양상이다. 2천995가구, 8천억원 규모의 사업으로 건설사 2곳의 시공사 선정 경쟁으로 불법 홍보 논란이 발생하고, 불법 부동산 거래도 횡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광주 풍향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9일 조합원 직접 투표로 시공사를 선정한다.

롯데건설과 포스코건설사가 참여해 치열한 시공사 선정 경쟁을 벌이면서 조합원들을 현혹하는 각종 홍보 광고가 판을 치고 있다.

롯데건설은 광주시가 사실상 불허하는 49층 건설을 내세웠고, 포스코는 조합 측에 제시한 설계안과 다른 3개 안을 더 제시해 경쟁에 불을 붙였다.

여기에 2천만원 환급금을 선지급한다는 약속을 내세우거나, 조합 측이 경쟁 건설사를 밀어주고 있다는 비방을 해 조합 측으로부터 건설사들이 각각 경고성 공문을 받기도 했다.

최근 1년 사이 재개발정비구역 내 주택 가격이 2~3배 오르면서 많게는 3.3㎡당 웃돈이 1천만원까지 붙어 거래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 업자들이 성공보수 명목으로 법정 수수료를 초과하는 수수료를 받아 수십억을 챙긴 사례까지 얘기도 나온다.

하지만 풍향동 재개발사업에 대한 행정당국의 적극적인 단속과 지도점검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광주 북구청은 시공사 선정 경쟁에 대해 건설사들을 구청으로 불러 구두 경고했지만, 시공사 선정은 조합 권한이라는 이유로 현장 단속이나 지도점검을 하지 않고 있다.

뒤늦게 과열 양상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점검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고소 고발까지 난무하고 있는 풍향동 재개발 사업에 대해 행정 기관은 물론 경찰도 관심을 갖고 대처해야 할 것이다. 일을 더 키우려는 안 되지 때문이다.

생활정보전화

- ▲ 이주여성 긴급전화 1577-1366
- ▲ 응급질병상담 1399
- ▲ 미아·가출인신고 182
- ▲ 여성 긴급전화 1366
- ▲ 청소년 상담지원센터 1388
- ▲ 아동보호전문기관 1577-1391
- ▲ 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
- ▲ 응급의료센터 1399

긴급전화

- ▲ 기상예보 131
- ▲ 법률구조상담 132
- ▲ 인광알고음 상담센터 222-5666
- ▲ 광주 남성의 전화 673-9001
- ▲ 광주 여성의 전화 363-7739
- ▲ 수도 고장신고 121
- ▲ 전기고장 신고 123
- ▲ 가스사고 신고 383-0019

등록번호: 광주 가 0021 (원간)

호남신문

대표전화 (062) 229-6000
광고국 (062) 224-5800
팩스 (062) 222-5547

대표이사·회장·발행인 김 평 호
편집인·편집국장 강 서 원

본 사 : 광주광역시 동구 남문로 753번길 7
서울취재본부 : 서울특별시 노원구 하계1동 167-16
Tel (02) 2238-0003

인터넷 호남신문 www.i-honam.com

1946년 4월 창간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인쇄 (주)남도브런테크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화목보일러 사용 시, 주의하세요!

여름에서 가을로 접어드는 요즘, 큰 일교차로 인해 저녁이면 서서히 난방을 시작하게 되는데, 최근 기름보일러에 비해 연료가 저렴한 화목보일러 설치기구가 증가하는 추세다.

기름보일러나 가스보일러의 경우 온도자동제어장치나 과열방지장치가 잘 설치되어 있는 반면, 화목보일러는 특성상 건물 바깥에 설치하는 경우가 많고, 온도제어나 과열방지 기능도 미비해 화

재발생 우려가 높다.

따라서 화목보일러를 잘 관리하면서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주의사항을 잘 지켜야 한다.

첫째, 화목보일러 주변에 장작을 쌓아 놓거나 가까이 두지 않는다.

이는 자칫 불씨가 바람에 날려 화재로 확대될 수 있으므로 보일러 주변은 항상 깨끗하게 관리하고 빨간도 보일러 회구와 일정거

리 이상 유지한다.

둘째, 화목보일러의 연통 내에 불완전 연소된 나무찌꺼기나 글음이 생기지 않도록 수시 청소하고, 물 온도센서 등 기계장치에 비바람이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

셋째, 샌드위치패널 주택이나 목조주택은 화재로부터 특히 취약하므로, 화목보일러 설치 시 건물과 회구, 연통의 간격을 벽돌주택보다 더 안전하게 유지하거나 발길을 마련해 사용한다.

넷째, 회구 주변에 소화기나 물양동이, 수도와 직접 연결된 물호스 등을 설치해 유사시 즉시 사

용가능토록 대비한다.

이상 화목보일러 사용 시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았다. 화목보일러는 빨간으로 사용하는 나무의 양이 생각보다 많이 든다고 한다.

같은 지역에서 여러 집이 사용할 경우 빨간 구입을 위해 산림을 훼손하는 경우가 있는데, 빨간은 반드시 판매업체를 통해 구하고, 사용 시 주의사항도 잘 숙지해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단 한건도 발생하지 않길 바란다.

임영진 / 화순읍주119안전센터 소방위

문화융성 문화가 있는 삶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

서로의 입장을 바꿔보면 어떨까요?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기 보다 상대방 입장에서 한번 더 생각하면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지 않을까요?

당신의 작은 배려가 상대방을 미소짓게 합니다. 세상을 더욱 따뜻하게 합니다.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듭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